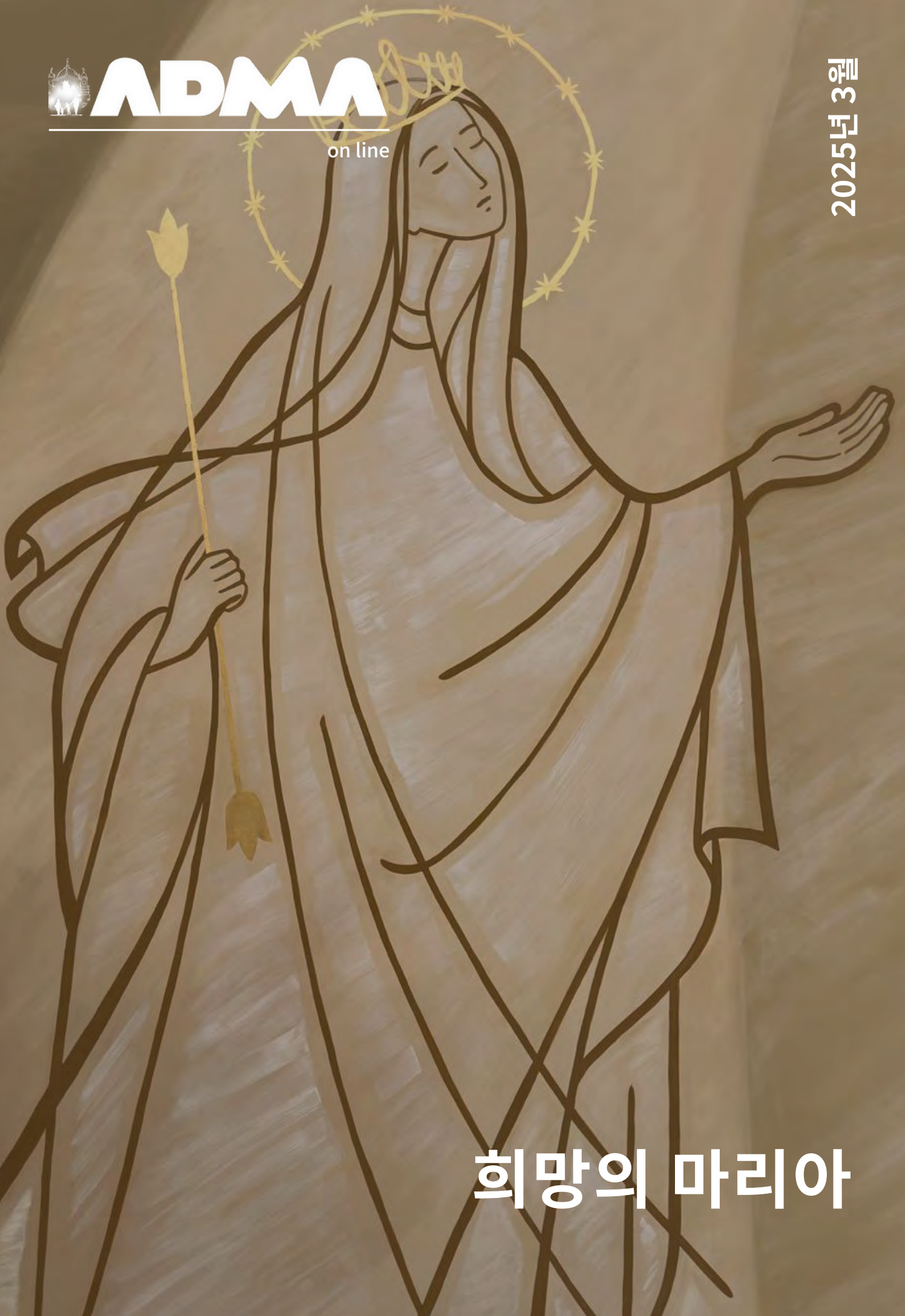




ADMA

on line

2025년 3월



희망의 마리아

요약

사설

- 3

희망의 순례자가 되어 부활을 향해 걸어갑시다.

양성 여정

- 4

교회의 희년을 위한 위대한 기도의 교향곡
7. 아베 마리아 - 정중하면서도 사랑이 가득 담긴 인사.

친숙한 문자

- 5

아직도 성체처럼.

복자들과 거룩한 살레시오 가족들

- 7

3월19일 : 성요셉.

가족연대기

- 8

- 프라샤르봉에서의 피정 : 가족보다 더 가족이 되어.
 - “희망에 닿을 내림”: 첸나이 주 - 인도.
 - 희망에 닿을 내리고, 젊은이들과 함께 걷는 순례자.
 - 남수단 - 새로운 ADMA지회.
-

월간 기도지향

- 10

위기에 처한 가정을 위해.

기사와 사진 보내기 여러분이 수행하는 양성 모임, 도움이신 마리아 24일 기념, 봉사활동의 기사와 사진 제목과/또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사(.doc 형식, 최대 1200자 공간 계산하지 않음)와 최대 2장의 사진을(jpg디지털 형식 및 너비 1000px 이상의 크기) adma@admadonbosco.org로 보냅니다. 이메일 “가족 연대기”의 제목과 텍스트에 저자의 자료를 표시하는 것 (이름, 성, 촬영 장소, 소속 Adma, 도시, 국가)은 필수적입니다. 보냄으로써, ADMA는 항상 저자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사와 사진을 처리하고, 출판하고, 부분적으로라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이미지는 편집진의 재량에 따라, www.admadonbosco.org, 사이트 및/또는 다른 ADMA 출판물에 제목과 저자의 이름과 함께 발행될 수 있습니다.



희망의 순례자가 되어 부활을 향해 걸어갑시다

성찰과 영적 쇄신의 시기인 사순절을 맞이하여, “희망에 닳을 내리고 젊은이들과 함께 걷는 순례자”라는 **년 생활지표**는, 현재를 조명하면서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지침이 되어주는 또 하나의 소중한 열쇠가 됩니다.

희망은 오늘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전쟁, 경제 위기, 기후 변화, 만연한 환멸과 긴장, 모순으로 점철된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우리를 굳건히 잡아주는 닳처럼, 신뢰를 가지고 결단력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내면의 힘으로, 희망을 재발견하라고 부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은 환상이 아니며, 하느님께서 우리의 역사 안에 현존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기초로 합니다. 그리고 돈 보스코는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 보스코의 삶은 보다 가난한 젊은이들에게 구체적인 희망의 살아있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소년들을 보면서, 지금 이 순간의 어려움을 너머, 교육과 신앙 안에서 사랑으로, 그들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걷는 순례자가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접근 방식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참된 관계,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주는 것을 찾습니다. 그들을 꼭대기에 올려 놓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 곁에서 함께 걷는 여행의 동반자를 원합니다. 이것은 부모, 교육자, 수도자, 평신도,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초대입니다. 젊은이들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변화되게 하는 하나의 사명입니다.

교육과 사목에 있어서, 마리아의 존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던 희망의 어머니이십니다. 성모님의 삶은 하느님의 뜻에 대한 신뢰, 자신을 내어 맡김, 힘과 회복탄력성의 모범입니다. 돈 보스코는 도우미신 마리아에게서 지칠 줄 모르는 활동의 영감과 인도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모님께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발걸음의 빛, 어려움 속에서의 위안, 선이 언제나 승리한다는 확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3월은, 이러한 성찰의 의미가 더욱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부활은 희망의 승리, 죽음을 이긴 생명의 승리, 어둠을 이긴 빛의 승리, 증오를 이긴 사랑의

승리입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순례자가 되어 부활을 향해 걸어간다는 것은, 사랑과의 연대, 일상 안에서의 용서로부터 시작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 있고 전염성 있는 희망의 증인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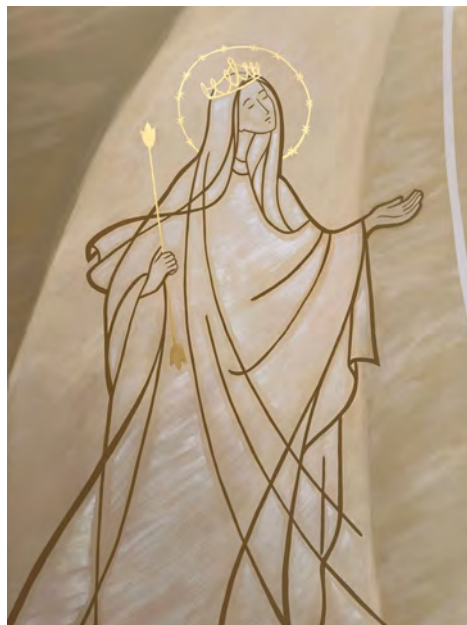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우리는, 모든 젊은이들이 인정받고 소중히 여겨야 할 고유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을 신뢰하며, 희망으로 교육하도록 부름 받았습시다. 돈 보스코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살레시오 사명은, 하느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제외되지 않음을 믿으며, 하느님 아버지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번 달이 우리 각자에게 희망의 아름다움으로 함께 걷는 기쁨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고, 특별히 젊은이들과 함께 걷는 기쁨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우미신 마리아께서 이 여정을 우리와 함께 동반해 주시고, 돈 보스코께서 그의 신뢰와 용기, 헌신의 모범으로 계속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순례자이지만, 희망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일치시켜 줍니다. **부활을 향한 좋은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브리엘 크루즈 트레조 신부,
SDB 발도코 아드마 영적활성자.**

**레나토 발레라,
발도코 아드마 회장.**





양성 여정

교회의 희년을 위한 위대한 기도의 교향곡

7. 아베 마리아 - 정중하면서도 사랑이 가득 담긴 인사



성모송은 다른 기도와 달리 반 이상이 복음서의 내용 그대로이며, 그 시작부터 천사가 등장합니다. 첫 단어가 가브리엘 대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성모 잉태 알림의 인사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루가1,28) 그대로이며,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말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루카 1,42)과 사랑하는 하느님의 어머니께 드리는 교회의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매일 자기 어머니께 인사드리듯, 성모님께 자주 사랑으로 천사처럼 인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을 구원한 말씀, 인류 구원의 근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말씀이었기에, 말씀은 전승하기 위해 암기되었습니다. 신앙과 단순한 이 기도보다 더 나은 기도를 찾는다는 것은, 교회의 삶 속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청할 때 뿐 아니라, 하루종일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기억한다는 것을 마리아께서 보신다면, 마리아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당신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찬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에게 불편함이 되지 않기를)! 이라는 문구가 미래의 선교사들을 위한 살레시오 대학 현관의 눈에 잘 띄는 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도적 열정은 마리아에 대한 개인신심을 통해 성숙해지므로, 이는 아주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삶, 주 예수님과 우정을 나누며 사는 비교할 수 없는 선물에 대해, 마리아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알려야 할 내적 필요를 느낍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1코린 9,16)”(프란치스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11항).

성모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성모님의 사도 성 루이지 마리아 그리농 드 몽포르 성인은, “천사의 인사는 거룩한 동정녀에 관한 모든 그리스도교 신학을 가장 간결한 방식으로 요약한 것이며, 천사의 인사로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고 동정녀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죄는 용서받았고 우리에게 은총이 주어졌으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거룩한 로사리오의 놀라운 비밀, 45번)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적 지혜를 간직하고, 이 축복된 말씀을 특별히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신자들의 입에 새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천사는 피조물인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칭찬인 ‘은총이 가득하신’ 이라고 인사합니다. 아주 드물게 사용되는 그리스어 (케카리토메네) 는 그 가치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리아가 은총이 가득한 이유는, 그녀의 원죄 없으신 잉태로부터 그녀를 하느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은총이 가득한’의 뜻)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마리아는 자신의 동의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이 가져올 구원의 은총을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거룩한 삼위일체의 각 위격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하느님의 삶에 온전히 참여하므로 은총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말씀이 육화 되심으로, 예수님과 동정녀 마리아는 뿔뿔히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긴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 즉 거룩한 인성은, 마리아의 더없이 깨끗한 피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영광 중에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로부터 하늘로 들어올림을 받아,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어서 성모송 은 육화의 신비가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간직될 수 있도록,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야기로 계속됩니다.

엘리사벳의 말을 나의 말로 받아들이면서, “성모송 을 바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마리아께 이중의 축복을 드리고 있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하나는 마리아께” (거룩한 로사리오의 놀라운 비밀, 52항). 우리는 하느님의 선하심과 충실하심, 강생과 구원으로 절정에 이르는 구원 계획에 대해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디서나 우리를 감싸는 이 구원 계획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거룩한 모성애를 위해, 여인 중에 복되시며, 은총이 가득 하십니다. 그러나 거룩한 축복은 마리아 안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 베르나르도가 잘 말했듯이, 마리아는 은총의 수로이며, 그녀의 전구에 의지하는 이들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처럼 성모송은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모님께 드리는 찬미와 간구로 바뀝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송 의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는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어머니 ’라는 가장 높은 칭호를



부여합니다. 이 교의를 선포하기까지 에페소 공의회(431년)는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에페소 공의회에서 출발한 마리아께 대한 하느님 백성의 공경은 존경과 사랑, 기도와 모범으로 놀랄 만큼 성장했습니다” (교회헌장, 66항). 하느님의 어머니는 하느님 백성의 눈에 의지할 수 있는 죄인의 안전한 피난처이며, 가장 어려운 순간의 변호자, 하느님의 은총의 관대한 전달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시간에 성모님께서 현존하고 계십니다.



몽포르가 말한 것처럼 성모송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거룩한 로사리오의 놀라운 비밀, 57번). “당신은 죄에 빠져 있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거룩하신 마리아를 찾으십시오. 성모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아베,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 깊은 존경심으로 인사드리십시오! 성모님께서 당신을 죄의 불행으로부터 구해주실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성모송은, 마리아께서 당신 자녀들의 참된 필요를 잘 알고 계시므로, 구체적인 요청들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모님께 신뢰를 가지고 전구를 청하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모송을 바칠 때 우리 각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에 더 남아 있는 지향을 하느님의 어머니께 말씀드리면서, 성모송을 바칩니다. 마리아께 전구를 청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힘입니다. 기도가 하느님의 능하신 힘을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라면, 마리아의 손을 통해 드리는 기도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지혜로우며 사랑스러운 성모송은,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면서,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합니다. 성모 송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말합니다. 이 지상의 삶에는 극복할 수 없는 종말이 있고, 이는 우리 각자가 개별적으로 직면해야 하며, 나를 위해 섭리로 준비된 것임을 기억시켜 줍니다. 성모송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어머니께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성모송은 우리가 우리의 뜻을 전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해 주는 유언과도 같이 소중한 기도입니다!

친숙한 문자

아직도 성체처럼

혼인과 성체성사의 심오하고 중요한 관계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봅시다. 교회는 성체성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특정한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연적인 구조”를 통해 부부와 가족으로서 친교를 이루며,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추가되거나 평등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할 만큼, 두 성사(성체성사와 혼인성사)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외적인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바로 이 구조를 자신의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비 안에 가져가셔서 내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새롭고 초자연적이며 구원하는

당신은 무지와 오류의 어둠 속에 빠져 있습니까? 마리아께 말씀드리십시오. 정의의 태양이신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광채에 참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리아를 찬미합시다!

당신은 은총을 잃어 버리셨나요? 하느님께서 복되신 동정녀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총을 기억하며, 마리아에게 성령의 모든 선물들로 은총이 충만하신 분이시라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그분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느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혼자 있다고 느끼십니까? 마리아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의로운 이들보다 성인들보다 더 합당하게 더 가까이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당신은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분은 당신의 아드님이시며, 당신의 삶이 그분의 삶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신은 그분의 어머니시기에, 주님과 똑같이 닮았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니 성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거룩한 삼위일체가 당신과 함께 하시는 당신은 소중한 성전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주님의 보호와 돌보심 아래 두실 것입니다.”

마르코 파네로 신부, SDB

친교의 표징과 장소로 들어 올리신다”(친교와 공동체, 8).

사랑의 대가

경험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최고의 축복으로 시작된 결혼생활도 조만간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가족의 독창성은 사랑의 힘과 유대의 안정성을 함께 유지하는 데 있지만, 그렇다면 배우자 사이에 초기의 감정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자주 애정이 충실에서 분리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몸과 말을 교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질까요? 왜 아내들은 남편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까? 왜 그렇게 많은 남편들은 자신들의 아내들에게 대화와 봉사를 제공하는 데 관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실해야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공의회는 지혜롭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인 의무를 항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뛰어난 덕행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부부는 거룩한 생활을 복돋워 주는 은총의 힘으로 확고한 사랑과 너그러운 마음과 희생정신을 끊임없이 닦고 또 기도로 간구할 것이다.” 예수님의 현존만이 부부들의 내적인 것과 부부들 사이의 교만과 분노의 바위, 상대방의 결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적인 해결책에 대한 환상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슬픔과 잘못, 모든 굴욕과 실망을 승리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성체성사의 은총의 힘으로, “굳건한 사랑, 너그러운 마음, 희생정신”(현대세계의 사목 현장GS 49)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성체성사 없이는 혼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체성사는 혼인성사의 뿌리이자 수액이며 충만함의 원천입니다! 이것은 성체성사 없이는 혼인의 성사성의 충만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네티 몬시뇰은 인간의 혼인을 신적인 혼인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태양계에서 지구를 분리하는 것”과 같다고 올바르게 관찰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구는 완전한 어둠과 얼음장 같은 추위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맛있는 성체와 풍성한 포도주가 없다면, 혼인은 존경과 애정, 인정과 성취, 친구와 봉사 정신의 물만 고통스럽게 찾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갈증을 느끼며, 우리가 가진 자원만으로는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이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성체의 힘은 부부의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만 축소되지 않게 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은총이 되게 하며, 수행해야 할 과업이 아니라 먼저 환영 받아야 할 선물이 되고, 단순한 소망이나 순수한 계명으로서가 아니라 해낼 수 있고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되게 합니다! 이것은 젊은 사제였던 요한 바오로 2세가 혼인한 배우자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느님의 사랑을 당신과 나눕니다’라고 말하라고 조언한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 시작과 완성에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의 사랑은 없기 때문입니다.” 베네딕토 16 세가 애덕(사랑)에 관한 회칙(하느님은 사랑이시다8)에서 잘 설명하듯이-사랑은 유일한 실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의 사랑만이 존재합니다!

성체성사와 가정 공동체의 비유 사이에는 깊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한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간략하게 생각해 봅시다. 1. 성체성사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는 사랑으로 유대가 맺어지는 가족과도 같습니다. 2.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당신의 희생으로 교회를 신부로 세우시며(에페 5장),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십니다 (2코린 5 장). 이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로서 서로의 삶을 내어 주는 혼인의 사랑으로, 부모로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사랑을 통해 생명을 선물합니다. 3. 성체성사 안에서,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일치에는 차이를 수반됩니다. 성체성사는 우리의 가난함과 주님의 풍요로움 사이의 차이가 있고, 가정에서는 남성의 강인함과 여성의 부드러움 사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아름다운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사랑의 일치와 풍요로움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4. 가정에서 영혼뿐 아니라 몸으로도 사랑하고 생명을 탄생시키고 양육하는 것처럼,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몸의 선물로 우리를 주시기 위해 탄생하시고 양육하십니다. 그것은 언제나 육화된 사랑의 문제이며, 결코 온전히 영적인 것만이 아닌, 선의로만 이루어진 사랑이 아닌, 실제로 현존하는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사랑의 성사’인 성체성사 덕분에 가정은 예수님의 ‘새 계명’을 체험하는 첫 번째 장소가 되고, 삶과 피만이 아닌 믿음과 은총이 함께 하는 곳, 본능만이 있는 애정이 아니라 의지가 함께 하는 곳이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단지 애착이 아닌, 희생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내려놓는 곳, 나약함에서가 아닌 사랑으로 종이 되는 곳,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고통 받고 죽음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인간적인 바람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알베르토 카렐리 신부, SDB

(출처: 로베르토 카렐리 - 친숙한 문자)



복자들과 거룩한 살레시오 가족들

3월19일 : 성요셉

요셉은 겸손한 목수였으며(마태 13,55 참조), 마리아와 약혼한 사람이었습니다(마태 1,18; 루카 1,27 참조). 그는 “의로운 사람”(마태 1,19)으로서, 율법(루카 2,22.27.39 참조)과 네 번의 꿈을 통해 계시된 하느님의 뜻(마태 1,20; 2,13.19.22 참조)을 따르기 위해, 항상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자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길고 고된 여행 끝에 그는 마구간에서 태어난 메시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곳에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기 때문”(루카 2,7)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목자들(루카 2,8-20 참조)과 이방 민족을 대표하는 동방박사들(마태 2,1-12 참조)의 경배를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가 되는 용기를 지녔고, 천사가 계시한 이름으로 아기를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마태 1,21). 예수님의 탄생 40일 후, 요셉은 아기 어머니와 함께 성전에서 아기를 주님께 봉헌하였으며, 시메온이 예수님과 마리아에 대해 예언하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루카 2,22-35 참조). 그는 헤로데의 위협으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으로서 이집트에 머물렀습니다(마태 2,13-18 참조).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자신의 출생지인 베들레헴이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레아의 작은 이름 없는 마을 나자렛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어떤 예언자도 나올 수 없다”거나 “좋은 것이 나올 리 없다”(요한 7,52; 1,46 참조)고 말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다녀오면서, 열두 살 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애타게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마침내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토론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루카 2,41-50 참조).



성 요셉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와의 자녀 관계를 재발견하게 하고, 기도への 충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며, 하느님의 뜻을 깊이 식별하며 응답하도록 초대합니다.

복음서는 성 요셉을 ‘의로운 사람’(마태 1,19 참조)이라고 부릅니다. 요셉이 모범적으로 실천한 정의의 덕목은 하느님의 법, 즉 자비의 법에 온전히 순응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야 말로 참된 정의를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소명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나자렛의 성 가정을 지키는 보호자로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이 성 가정 안에서 살았던 친밀한 사랑과 기도의 분위기를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느님의 종 비오 12세 교황은 1955년 5월 1일, 노동의 존엄성을 모든 사람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 ‘노동자 성 요셉 기념일’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집트로 피신한 사건은 “하느님께서 인간이 위험에 처한 곳, 고통받는 곳, 도망치는 곳, 거부당하고 버려지는 곳에 함께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교회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박해 받을 때, 그리고 모든 형태의 박해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성녀 데레사의 말씀을 빌어 기억해 보면, 성요셉은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특별한 은총을 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성인들은 특정한 필요에 대해 도움을 주도록 하느님께 부름 받았지만, 내가 경험한 바로는 영광스러운 성 요셉께서는, 모든 필요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녀 데레사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해 봅시다. 그녀의 말은 참으로 뛰어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성 요셉께 은혜를 청하면서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베푸신 놀라운 은총들과,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해, 물질적, 영적 위험에서 벗어난 일들을 떠올리면 경이로움이 가득합니다. “다른 성인들은 특정한 필요 속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될 때가 많지만, 나는 영광스러운 성 요셉께서는 모든 필요 속에서 우리를 도와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에서 성 요셉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며 그를 보호하고 돌보면서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서도 성 요셉이 그에게 청하는 것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요셉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4 복음서 모두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루카 4,22 등)이라고 부릅니다. 마태오와 루카 두 복음사가는 요셉의 삶을 길게 다루지 않지만, 그의 부성애와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맡겨진 사명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가족연대기

프라샤르봉에서의 피정 : 가족보다 더 가족이 되어

프라샤르봉에서 프리마리아 ADMA 의 가족들과 함께 한 피정 경험은 분명히 제 사제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다 준 순간 중의 하나였습니다. 단순한 피정의 시간, 침묵과 숙고의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과 깊은 만남을 위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살았던 만남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더욱 진실하게 따르려는 같은 열망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제게 소중한 선물이었으며, 저는 이 안에서 평범함의 아름다움과 침묵의 힘,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하느님을 찾을 때 흘러 넘치는 크나큰 은총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프라샤르봉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그곳의 평온한 풍경 속에서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웅장한 산과 울창한 나무들로 자연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으며, 신선한 공기는 마치 따뜻한 환영의 포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맞이한 것은 단지 물리적인 자연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확신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창조 자체가 그분의 위대함과 우리를 위한 무한한 사랑을 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단순히 그곳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가족들 중의 가족”이라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피정과 기도의 순간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각자의 도전과 희망, 그리고 소망을 품은 수많은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결코 홀로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함께하는 침묵 속에서,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대화 속에서, 함께 나누는 삶 속에서 저는 새로운 차원의 삶의 깊이를 발견했습니다. 각 가정은 저마다 빛과 그림자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서로에게 귀중한 무언가를 나누고 있었고, 그러한 나눔이 제 마음을 감사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참된 공동체적 체험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공동기도였습니다.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깊은 영적 연결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 마디 한 마디의 기도가 다른 이들의 기도와 어우러져, 마치 하나의 조용한 합창처럼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개인기도 시간에는 주님과 강렬하고도 친밀한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영혼의 침묵 속에서 그분의 현존은 너무나 분명했고, 제 내면 깊은 곳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하나가 새로운 의미와 생명력을 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 일상의 삶을 나누는 순간들 속에서 그러한 날들의 가장 큰 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경당에서나 공식적인 기도 시간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함께 하고, 오솔길을 함께 걸으며, 일상적인 작은 몸짓들 안에서 서로 만나곤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단순한 것들 속에서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상호 섬김, 주의 깊은 경청, 함께 나누는 웃음, 그리고 존중하는 침묵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신앙은 거창한 행동이나 특별한 순간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고 받는 작은 사랑의 실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프라샤르봉에서의 시간은 바쁜 삶의 흐름을 잠시 멈추고,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로 하여금 본질적인 것에 다시 집중하게 만들었으며, 제 사제 성소와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길에 대해 더욱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마음의 침묵 속에서 저는 하느님께서 제게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며, 끊임없는 회개와 성화를 통해 세상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초대하신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한 것은, 이렇게 수많은 가족들—젊은이들, 부부들, 부모와 자녀들—이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같은 하느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가족이신 하느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며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할 때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을 강하게 깨달았습니다. 저의 마음만이 아니라, 진리와 하느님의 사랑을 찾는데 있어서 하나가 된 대가족으로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피정이 끝날 무렵, 저는 깊은 평온함과 며칠 동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분께서는 더욱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그분을 따르고 우리의 신앙을 단순한 규칙이나 의무가 아니라, 살아 있고 변화시키는 그분과의 관계로써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피정이 어떤 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에서 보다 더 큰 열정과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하나의



시작이요, 하나의 동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를 돕고 지지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프라샤르봉에서 지냈던 그날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 외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연 가운데에서 하느님과 그토록 친밀한 만남, 함께 나누었던 기도들, 마음을 열어 주었던 대화들, 그리고 세상 의 소음 속에서 쉽게 잊혀지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침묵의 순간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다른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언제나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시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에 더욱 힘있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계속해서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해주는 경험이었습니다.

**가브리엘 크루즈 신부 SDB.
아드마 세계 영적활성자**

“희망에 닿을 내림”: 첸나이 주 - 인도

인도 첸나이(INM)의 “성 토마스 사도” 살레시오 관구는 “희망에 닿을 내리고, 젊은이들과 함께 걷는 순례자”라는 주제로 기쁘게 2025년도 생활지표를 발표하면서, 지역별 행사들을 통해 이를 기념하였고, 살레시오 가족 영성의 날과 함께 하는 큰 축제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생활지표 발표는 1월6일 풍디세리 “성령” 성당에서 시작되었으며, 1월 7일에는 엘라기리 힐즈의 돈 보스코 센터, 1월 8일 벨로르 ‘아욱실리움 학교’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여정은 2025년 1월 18일(토요일) 첸나이에 위치한 에그모어의 “돈 보스코”센터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약 800 명의 살레시오 가족 구성원이 생활지표 발표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그중 약 300명은 살레시오 가족 영성의 날에도 함께 하였습니다.

참석자들 중에는 살레시오회 사제, 수사, 신학생(SDB), 살레시오수녀회 수녀들(FMA), 도움이신 마리아의 수녀들(SMA), 돈 보스코 여자 재속회(VDB), 돈 보스코 남자 재속회(CDB), 살레시오 협력자회(SSCC), 도움이신 마리아회(ADMA), 돈보스코 졸업생(Ex.DB),

그리고 관구를 구성하는 네 지역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희망’을 중심으로 한 생활지표의 주제는 행사 내내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참가자들은 신앙과 봉사 안에서 젊은이들과 동행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희망에 닿을 내리고, 젊은이들과 함께 걷는 순례자

2025년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이탈리아 토리노 발도코에서는 제43회 살레시오 가족 영성의 날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전 세계에서 온 35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함께 했으며, 이는 살레시오 가족을 구성하는 32개 그룹 중 14개 그룹을 대표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ADMA의 영적 활성화자인 가브리엘 크루즈(Gabriel Cruz) 신부, FMA의 ADMA 전 세계 영적활성자인 루크레치아 우리베 수녀, 그리고 ADMA의 회원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살레시오회 총장의 2025년 스트레나 “희망에 닿을 내리고, 젊은이들과 함께 걷는 순례자” 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날, 살레시오회 부총장 스테파노 마르톨리오 신부는 폐막 미사를 집전하였으며, 이 행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으며, 현지에서 참석한 이들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도 많은 이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미사 중에 마르톨리오 부총장 신부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째, 당신 자녀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어 당신 자녀들을 위해 전구하시는 도움이신

마리아의 모성적 현존을 강조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 곁에 계신 마리아의 중재는 언제나 신앙, 순명, 그리고 희망의 생명력을 복돋우는 역동성을 불러일으켜 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날을 통해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 주는 큰 가족의 증거로부터 축복받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수단 - 새로운 ADMA지회

2025년 1월 31일 금요일, 남수단 와우의 살레시오 공동체는 기쁨의 분위기 속에서 살레시오회의 창설자 성 요한 보스코 축일을 경축하였습니다. 축제는 와우 교구의 주교 마태우스 레미시오 아담 아비티쿠 주교가 집전한 노동자 성 요셉 성당의 미사로 시작되었으며, 성직자 및 여러 수도 공동체가 함께 하였습니다. 성 요한 보스코의 대축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미사 중 본당과 살레시오 공동체를 위하여 세 번의 큰 기쁨의 순간을 경축하였습니다. 먼저 두 쌍의 혼인성사가 거행 되었으며, 한 명의 새로운 살레시오 협력자(SSCC) 회원의 서약식과 살레시오 협력자 회원들의 서약 갱신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수단에서

새롭게 시작될 ADMA(도움이신 마리아회)를 위한 주교의 강복도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ADMA 지회는 살레시오회의 안토니라즈 프란시스 신부가 지회 영적활동자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오후에는 살레시오회 회원들과 살레시오수녀회(FMA) 회원들, 살레시오 협력자들과 함께 성 요한 보스코를 기념하는 축제를 이어갔습니다. 행사 중 두 편의 영상이 상영 되었는데, 하나는 성 요한 보스코의 생애를 다룬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와우의 살레시오 공동체와 그들의 사목활동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돈 보스코의 살레시오 회원들에게 가족정신은 본질적이기 때문입니다.

월간 기도지향

위기에 처한 가정을 위해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 전 세계 모든 아드마 그룹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기에 처한 가정을 위해

분열된 가정들이 용서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 다름 안에서, 서로에게 주어진 풍요로움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